사업체 매매

오렌지카운티 터스틴·어바인 지역에서 성업중인 중식당(한국식/미국식) 리스기간 5년 이상/ 순이익 2만불

(949) 501-8555 Leah Ivy Chang

부동산·경제 BUSINESS · REAL ESTATE

전 당 포

가주 최대 규모 / 최고 가격 보장 한인 최초 감정사 / 절대 비밀 보장 각종 명품, 귀금속, 시계

(714) 647-0005 / (714) 647-0007 318 W. 4th St., Santa Ana, CA 92701

구글, 모든 콘텐츠·앱에 수수료 30% 부과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장 터인 '플레이스토어' 에서 팔리 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대해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 다. 현재는 게임 앱에 대해서만 강 제하는 30% 수수료를 웹툰, 음악 등 모든 유료 앱으로 확대 적용하 겠다는 것이다.

지난 29일 '매일경제' 에따르면 구글은 전날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

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인앱결제는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가리킨다. 구글은 2013년부터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과 30% 수수료 부과 정책을 발표했지만 게임 앱에만 우선 적용해왔다. 구글은 "지속적인 플랫폼 투자를 가능케하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구글플레이와 개발자



▲ 구글이 내년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팔리는 모든 앱 과 콘텐츠에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부과한다. 사진=shutterstock

의 동반 성장을 추구한다."고 추 진 배경을 설명했다.

구글의 바뀐 수수료 정책이 적용되면 앱 개발사들의 비용이 그만큼 커져 웹툰, 웹소설, 음악, 동영상 등 콘텐츠 서비스 이용료가오를 것이라는 게 IT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얘기다.

IT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개방

과 무료 정책을 내세워 앱 참여자를 늘려왔는데 갑작스 러운 정책 변화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 혼란스러울 것"이 라고 지적했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개발총괄은 "앱 개발자의 글 로벌 진출을 돕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입점 한 서비스에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 전기·수소차 정책 제동

트럼프 행정부가 휘발유 차의 판매를 2035년부터 급지(관련기사: 본보 1335호 '캘리포니아주, 2035년부터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키로한 캘리포니아주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shutterstock

지난 29일 '연합뉴스' 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앤드루 휠러 청장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휘발유 차 판매 금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냈다.

휠러 청장은 서한에서 캘리포니아주가 고질적 전기 부족 탓에 대규모 정전을 겪었고, 인근 주에 전기 공급 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전등도 켜지 못할 정 도로 전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기 자동차를 도입할 경 우 전기는 어떻게 공급하겠는가?" 라며 캘리포니아주 의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휠러 청장은 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휘발유 차 판매를 금지키로 한 것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와의 논의 없이 캘리포니아주가 독자적으로 휘발유 차 판매를 중지하고 전기 자동차판매를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 측은 "캘리포니아주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기를 지키기 위해 당초 계획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 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2035년까지 완성차 업체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전기나 수소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배출가스 '0' 인 승용차와 픽업트럭만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 소비지출 증가 속도 둔화

지난 8월 미국인의 소비지출 증가 속도가 둔화했지만, 시장 예상 보다는 양호했다. 소득은 예상보 다더 많이 줄었다.

2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전날 8월 개인소비 지출(PCE)이 전월 대비 1.0%(계절조정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9% 증가를 소폭 상회한 수치다.



▲ 미국 경제의 성장동력인 개인소비지출이 둔화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성장동력이다.

자동차 등을 포함한 내구재 소비는 8월에 0.9% 증가했다. 비내구재 소비는 0.1% 감소했다. 서비스는 1.4% 늘었다.

8월 개인소득은 전월 대비 2.7% 감소했다.이는 월가 예상 2.5% 감 소보다 더 줄어든 수치다.

소비지출은 7월의 1.5% 증가보다는 둔화했다. 7월 소비지출은 당초 1.9% 증가에서 하향 조정됐다. 미국 소비 지출은 5월 8.7% 증가, 6월 6.5% 증가에서 차츰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다. 미국 가계의 소비지출은 미 경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을 펼 때 주목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 가격지수는 8월에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연준은 당분간 3~4%를 나타내도 섣불리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미국 경제의 침체를 방증하는 지금 같은 저물가 상황에서는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